



던킨 30주년 '원더스' 론칭 "놀라운 맛 선사" L1



Life

K-미용기기 돌풍 글로벌 뷰티시장 수출 괄목상대 L2



개울가 옆 황금빛 논두렁 따라 근심없는 마을서 가을 느껴볼까

서울 도봉구에는 '도시 속 시골'로 불리는 '무수골(無愁골)'이 있다. 세종의 17번째 아들 영해군(1435~1477)의 묘를 조성하면서 생긴 마을로, 550년 가까운 역사를 지녔다. 마을명은 영해군의 묘를 찾은 세종이 약수터에서 목을 축인 뒤 '물 좋고 풍광이 좋아 아무런 근심이 없는 곳'이라 한 데서 유래했다. 대전 중구, 상주 모동면, 영동 양산면 등 전국 각지에 무수골이라는 지명이 붙은 곳이 존재한다. 서울역사편찬원의 '서울 지명사전'에 따르면, 골짜기나 산 밑에 있는 마을 중 물이 많은 곳에 '무수골'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 ① 지난 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윗무수골 일대를 찾았다.
- ② 시민들이 나무가 우거진 윗무수골 일대를 산책하고 있다.
- ③ 윗무수골을 찾은 시민들이 계곡에서 발을 담그며 물놀이 즐기고 있다.
- ④ 북한산 자락에 남은 유일한 농경지인 무수골 논체험장에 심어진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다. /김현정 기자

되살아나는 서울

도봉구 '윗무수골'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곳

지난 7일 오후 무수골을 찾았다. 지하철 1호선 도봉역 2번 출구로 나왔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 탄 도봉08번 마을버스에서 신기한 경험을 했다. 버스에 타는 사람, 내리는 사람, 모두가 떠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말을 거는 장면을 목격할 것이다. 버스에 오르는 사람은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했다. 버스 기사는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반대편에서 기다리면 안 돼요. 버스 안 가요"라는 등의 말을 건넸다.

마을버스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다. 어르신들은 "상전이 와서 장을 많이 봤다", "자식이 왜 상전이나", "눈치 보이면 상전이 지", "가는 날이 장날이다", "추석이 왜 장날이나, 축제지" 하는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깔깔거렸다. 대화 내용이 흥미로워서 귀에 쫓은 이어폰을 빼고 말소리를 엿들었다.

버스 안 분위기가 오순도순 화기애애했던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노인이 버스에 오르면 재빨리 자리를 양보했고, 어르신들은 "아유 참. 고마워요"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세종의 아들 영해군 묘 조성하며 생긴 마을 물 좋고 풍광 좋아 '무수골'이란 이름 붙어

화기애애했 마을주민들 분위기에 '힐링' 나무 우거진 만세교, 사진찍기 좋은 명소 사계절 자연정취 느낄 수 있는 농경지도

30년 넘게 서울에 살면서 대중교통을 수없이 많이 이용해왔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이토록 진하게 풍겨오는 마을버스를 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훈훈한 광경을 눈에 남긴 뒤 종점에서 하차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아직 가을에 자리를 내줄 준비가 되지 않은 숲은 짙은 녹음을 드리웠고, 미세먼지가 한 톨 없는 청명한 하늘은 푸르름을 뽐냈다. 눈이 시리게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매미 우는 소리, 풀벌레 노랫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서 만나는 벼의 황금빛 물결

무수골은 윗밭, 중간밭, 아랫밭 세 개로 나뉜다. 국립공원에 포함돼 개발 광풍을 피해 간 윗무수골로 발걸음을 옮겼다. 신라 고찰 원통사 밑에서 발원한 계곡 물줄기를 하류에서부터 따라 올라갔다.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물

속 생명체들을 잡는 데 열을 올렸다. 차양 모자를 꼭 눌러 쓴 어른들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했다. 물놀이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길을 걷다 보면 성신여자대학교 난향별원이 나온다. 넓은 정원과 2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학생 단체의 합숙 훈련 장소라고 하는데, 잡풀이 우거져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난향별원에서 만세교로 진입하는 길목은 농촌선 안 될 사진 명소다. 나무가 우거져 그늘진 공간 뒤로, 쪽뽕은 평야 위에 햇빛이 쏟아져 한 폭의 명화를 그대로 베껴놓은 듯했다. 이곳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면 현실 세계에서 판타지 세상으로 가는 천국의 문이 켜진 것처럼 보인다.

영국 작가 루이스 캐럴의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굴 같은 길을 지나면 광활한 논이 펼쳐진다. 이곳에선 푸르푸룩한 벼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무지개 논 입구에 박힌 나무 팻말에는 "도봉산 윗무수골은 북한산 자락에 남은 유일한 농경지로, 봄에는 어린 모, 여름엔 파릇파릇 자라는 벼, 가을에는 황금 물결, 겨울에는 눈 위에 찍힌 고라니 발자국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며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자연의 지혜를 배워보자"는 말이 쓰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손준호 中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K리그도 못뛰나
▲'안세영 사태' 배드민턴협회 민낯 드러나 /사진 뉴시스

▲MLB최초 50-50 노리는 오타니, 4홀런 3도루 남았다
▲김민재 "붉은악마에 인사거부 제행동 잘못" /사진 뉴시스



▲KPGA 메이저 우승 유현조, 세계 172위에서 86위로 점프
▲한국 농구, 이란 꺾고 U-18 아시아컵 5위 /사진 뉴시스